

2017년 4월 29일, 조천읍 북촌리 현덕선 씨 댁, 강수경 조사.  
 현덕선(여, 1928년생, 조천읍 북촌리)

- 줄거리: 북촌리 사람이 선흘리 제사 집에 다녀오다가 도깨비를 만났다. 도깨비가 어디가 제일 무섭냐고 묻길래 우리집 앞마당이 제일 무섭다고 하니 도깨비가 집 앞마당까지 데려다 주었다.

**[제보자]** 경 허고 우리 할머니 오라방은 선흘 간 밤이 식게 먹영 오단 도체비가.

“너가 어디가 켈 무섭냐?”

이러니까,

“우리 앞마당이 켈 무서워요.”

오꽃 갓당 앞마당에 노나네 그냥 혼 발자국도 안 헨 헛젠. 할망이 백으답 나니까 막 시켜. 후제 살멍 이렇게 살았지. 나야 뭐 압니까.

**[조사자]** 경 허니까 도깨비가 앞마당에.

**[제보자]** 앞마당더레 오꽃 들러다 쥘.

**[조사자]** 데려다 쥘. 아이고 (웃음).

**[제보자]** 옛날은예, 막 여기도 도체비 나곡 여기도 도체비 나곡 막 헤난디. 이젠 너무 사름이 너무 하부니까 엇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.

- 핵심어 : 도체비, 앞마당, 식게, 선흘리, 도깨비